

ESHA

# 에덴뉴스

2018년 11月  
통합 12-81호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행복칼럼2018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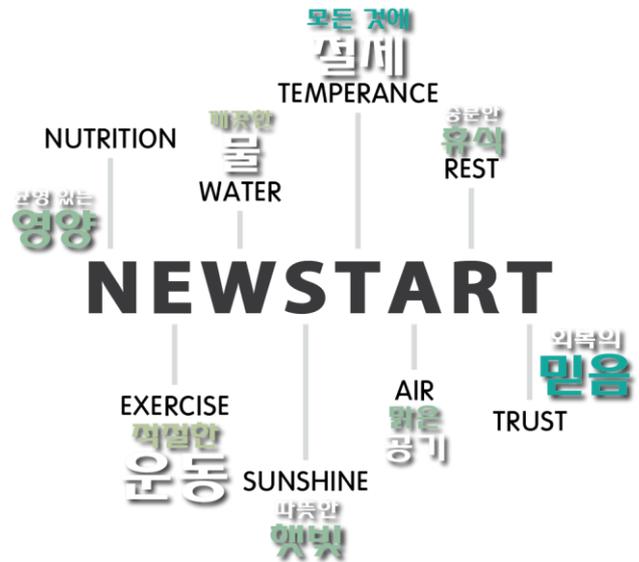
06 에덴 마당  
화이팅칼럼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시다



SPECIAL 편집장 특집

새로 시작하는 에덴,  
다시 돌아보는 에덴

에덴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생활습관개선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완치를 최고의 목표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여덟 가지의 생활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스타트는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이번 호에는 건강향상을 위한 좋은 습관을 총 정리해 봅니다.

<p><b>N</b> Nutrition 영양</p>	<p>장 길이가 긴 동물들은 모두 초식동물입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장 길이가 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물은 채식이라는 말입니다. 현미밥, 콩종류, 견과류, 씨앗류, 신선한 과일은 균형진 채식을 위한 훌륭한 음식입니다.</p>	<p><b>T</b> Temperance 절제</p>	<p>절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롭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이롭거나 필요한 요소들도 적절하고 균형지게 공급해야 합니다.</p>
<p><b>E</b> Exercise 운동</p>	<p>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훌륭한 강장제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 발생률이 30~40%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p>	<p><b>A</b> Air 공기</p>	<p>신선한 공기의 좋은 호흡은 피를 맑게 해 줍니다. 충분하고 깊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합니다.</p>
<p><b>W</b> Water 물</p>	<p>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혈액순환, 다이어트, 항노화와 숙면에 유익을 주며 먹는 양보다는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321'물 건강법(3=식사 30분 전, 2=식사 2시간 후, 1=아침 공복 1잔)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p>	<p><b>R</b> Rest 휴식</p>	<p>편안한 쉬는 선물입니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취침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노화를 지연시키고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줍니다.</p>
<p><b>S</b> Sunshine 햇빛</p>	<p>햇빛은 생명력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연구에 의하면 햇빛을 쬐면 70% 이상의 질병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아주 큰 결과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일을 햇빛이 합니다. 하루 30분의 투자로 24시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p>	<p><b>T</b> Trust 믿음</p>	<p>모든 일은 마음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질병은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된다는 신념은 어떤 약보다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건강 회복의 지름길은 마음의 평화와 변치 않는 확신과 믿음입니다.</p>



## NEWS 에덴의 소식

### 환우 치유 · 부흥 전도 집회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환우치유부흥 전도집회를 열었다. 새벽과 저녁으로 나누어 진행된 집회를 위해 류태희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김남혁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건강강의를 통해 뉴스타트를 소개했다. 새벽 120여명, 저녁 200여명의 환우와 직원이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였다.

한편, 사랑의 듀엣(남양우, 이재숙 부부)이 한 주간 동안 전도 집회를 위해 봉사하였는데 열정적이고 마음 뜨거운 찬양을 통해 집회 현장의 열기를 고조시키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등 전도집회의 견인 역할을 했다.

### OCN 드라마 '트랩' 촬영

지난 10월 18일, 배우 이서진씨가 출연하는 OCN 드라마 트랩의 촬영이 에덴병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촬영된 드라마는 2019년 1월에 방영될 예정이다.



### 임상검사실 개설

10월 18일, 임상검사실 재가동 감사예배를 드렸다. 개원 당시 허가되어 운영하던 임상병리실이 2013년에 환경문제로 폐지된 후로 채혈실로 운영하며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던 중 이번 조건부 허가(폐놀 발생기기 제외)를 받아 임상검사실로 재가동하게 되었다.



### 관리과 창고 착공예배

10월 24일, 관리과 창고 착공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간이창고로 사용해 오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관리과 창고를 신축하게 되면 병원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원동정

♥ 수고하셨습니다 ♥  
이수현(영양과) 08월 31일 부



## 행복칼럼[18] 원목실장 류태희

### “암 예방과 치료 : TSL 프로그램”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여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 2:10, 14)

#### 1. “눈이 빠지도록 보고 싶다.”

설악산 대청봉 등산 중 하산 길에 잠깐 쉬는 동안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등산하다가 아내가 잘 있는지 걱정이 되어 전화를 여러 번 하였지만 계속 통화가 되지 않아 별일 없이 잘 있는지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결국에는 근처에 있을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었다. 힘들게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첫마디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보고 싶어서 눈이 빠질 것 같아...”

얼마 전 읽은 통계자료에서는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로부터 듣고 싶은 사랑의 말들이 있는데 “당신 멋져, 최고야!”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난다.” 등이었다. 그런데 이들 표현보다도 더 듣고 싶은 1순위의 다른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OO야, 정말 보고 싶어!” 라는 말이었다. 점점 바빠지고 따뜻한 마음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가고 이웃과의 담이 높아져 가는 시대에 서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데 공감한다.

#### 2. TSL 프로그램과 그 효과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업 교수는 OO학술대회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며 주고 받는 사랑의 표현이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세대에서 열린 ‘사회복지연구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에서 “노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배우자에게 매일 이런 표현을 한 집단(10명) 피험자의 혈액 내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가 50% 감소하고 항산화 능력 지표는 30% 늘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TSL(Thank, Sorry, Love)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세대 의대 김동구 교수팀과 함께 치료효과를 검증했다.

연구진은 7주 동안 피험자 10명씩을 각각 TSL 프로그램과 일반교양 프로그램에 노출시키고, 다른 10명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각 그룹의 혈액 성분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TSL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의 우울 증상이 개선됐으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관련된 지표인 ‘심박동 변이-심장박동의 규칙성 정도’도 약 15%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체내 산화성 스트레스가 줄면 암과 고혈압, 당뇨, 파킨슨 병 등의 발생 확률이 낮아지고 노화도 늦춰지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사랑과 감사

어떤 학자가 강아지를 대상으로 2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출입문에 있는 한 그룹의 강아지들에게는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사랑한다, 귀엽다, 예쁘다.”고 말하며 쓰다듬어 주고 안아 주었다. 다른 한 그룹의 강아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구박을 하고 책망을 하며 미워했다. 한 달이 경과한 후 강아지의 뒷다리에서 혈액을 뽑아 조사한 결과 사랑을 받은 강아지 그룹은 면역력 수치가 좋고 건강한 반면 미움을 받은 강아지 그룹은 면역력이 약하고 곧 병이 들 것처럼 의기소침 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물들은 끊임없이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아간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음식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꼭 필요한 사랑과 마음의 즐거움이다. 심지어 말 못하는 식물(꽃)과 나무들도 사랑을 줄 때 더욱 건강하게 자라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전 13:1-8)

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전 13:1-8)



## STORY 투병이야기



### 내가 만난 하나님

511호 김수택 환우 보호자 최미경

저희 남편은 뇌장암 4기로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하얘져서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참았지만 집에 와서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항암을 해야 하나,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인처럼 살아야 하나,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남편은 항암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의견에 따라 항암을 결정했고 곧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몸도 보호해주어야 하고, 암을 이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마음만 급하여 갈팡질팡하다 보니 이것도 해야 하나, 하다가도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관찮을까? 반문하기를 반복하곤 했고, 주변에서 알려주는 수많은 조언들이 결정에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 갈 무렵, 아들의 지인을 통해 에덴요양병원을 알게 되어 세 번씩이나 방문하여 검토하고 고민을 거듭하다 입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뇌장암이 가장 힘든 암이라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었고, 나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기에 희망보다는 절망이 컸습니다. 남편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토록 대범하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공허해 보이고 어딘가 텅 빈 것 같이 기세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에덴에서 각종 면역력 치료와 뉴스타트를 접하며 반드시 낫을 것 같은 마음의 믿음이 생기면서 항암보다도 여기의 치료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좋고 여기서 남편이 꼭 치료되고 예전처럼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에덴에 적응하며 생활하던 중 김영봉전도사님, 오영자집사님으로부터 성경공부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나 워낙 자신의 종교에 맹신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남편이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종교는 자유이므로 남의 종교 비방하지 않고 각자의 종교를 믿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남편은 성당에 다니고 저는 절에 가서 활동하곤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참 종교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 의아했고 친구나 지인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나는 내 종교를 맹신하였기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영자집사님이 시간마다 찾아와 성경공부하자고 해서 안면 때문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류태희목사님, 오정채목사님과 다니엘서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많은 것이 너무나도 큰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고, '아, 내가 잘 못 알고 살았구나. 이미 죽고 부활하지 못한 석가모니의 돌부처에 이렇게 맹신하였다는 것이 매우 어리석었구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몰랐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남편 역시 천주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니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공부를 너무 재밌어 하며 화장실에서도 성경책을 보느라 한참을 나오지 않고 안마의자에 앉아서도 성경책을 봅니다.

점점 믿음이 깊어감을 느끼며 암도 꼭 없어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믿음으로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는 믿음, 저와 남편도 진실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그리 되어서 해외로 국내로 여행도 하고 선교도 하며 행복한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기적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에덴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반겨주시고 돌봐주시니 참으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처럼 예수님 섬기며 예수님의 종으로 포도나무농장의 마지막 농부가 되어 일하며 살겠습니다.



## TODAY 따뜻한 하루

## 마음의 평안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 아리스토 텔레스 -



한 젊은 청년이 인생을 충실히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사랑받는 삶'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으며,  
'풍족한 삶'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명예로운 삶'을 위해 정의롭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남다르게 노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청년은 누구보다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듯한 느낌에 항상 걱정과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충실한 삶을 위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훌륭히 실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빠진 것이 무엇인가요?”

스승은 청년의 버킷리스트를 보고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일리가 있는 계획이네. 그런데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큰 고통이 될 걸세.”

그리고 스승은 청년의 리스트 맨 위에 한 줄을 더 적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풍족한 혜택으로 편안하게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출처 : 따뜻한 하루 / www.onday.or.kr

## FOOD 몸에 좋은 제철 과일

## 사과



사과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유해 콜레스테롤을 몸밖으로 내보내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예방해준다. 또한 칼륨은 몸속의 염분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또한 위액의 점도를 높이고 악성 콜레스테롤을 내보내어 급격한 혈압상승을 억제해주며, 페놀산은 체내 불안정한 유해산소를 무력화시켜 뇌졸중을 예방한다. 사과에 함유된 케세틴은 폐기능을 강하게 하여 담배연기나 오염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해 준다.



## FIGHTING 화이팅 릴레이

원무과장 오상국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앞이 보이지 않는 출발을 한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가면서 시간이 가면 차차 나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갈수록 길은 더욱 어둡고 좁아 지기만 하는 것 같다.  
 고통과 두려움은 커져만 가는 것 같다.  
 인간이란 누구나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학습되어져 온 존재이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짙은 안개 속을 걷도록  
 우리에게 아프고 슬픈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보다.  
 우리의 이름, 자존심, 명예, 지위, 재물 등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익숙한 것들을 하나씩 떼어 내시며 오직 당신의 손만 의지하도록 하셨다.  
 이런 고리들이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 우리는 금단현상으로 몸을 떨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들은 깨어지고 부서지며 보이지 않는 길을 오늘도 가고 있다.  
 우리의 길목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갈대상자속에서]

에덴에서 단 한 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암환자 가족으로서 때로 너무 서러워서 주님께 빠치기도 했고 때로 감사해서 눈물  
 을 쏟기도 했습니다. 친구와도 잔증이 생겨야 친해지듯 날마다 예수님과 잔증을 쌓아 가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은 흑암 속에서 보화를 캐는 기회였습니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사야 45:3)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사야 33:6)

우리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 고통스러운 경험들, 그리고 작은 상처들까지도 그분께서 사  
 용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세요. 갈대 한 올은 연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  
 모세를 구한 바구니가 되었듯이 갈대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겼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병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곳,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와! 하나님, 굉장하시네! 정말 살아계시네!”

화이팅 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오상국님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관리과장 변성철님'입니다.

## 칭찬합시다~

‘박선민’ 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업무 면에서 정확, 신속하여 신뢰감을 주  
 고 인성 면에서 늘 미소와 원활한 소통으  
 로 편안함을 주는 변함없는 천사입니다.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조무사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202 채금자 -

관리과 ‘한정광’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언제나 스마일인 한정광씨 덕분에 사소한  
 불편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에덴  
 의 친절 직원으로 강추합니다.  
 - 209 임금옥 -

201호 자매님들을 칭찬합니다.  
 늘 따뜻한 인사와 관심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약무과 조진숙 -

전산실에 계신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몇 달 전, 노트북이 고장나서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날릴까봐 걱정되고, 사설업  
 체에 맡겨야 하나 고민되었는데 전산실에  
 있는 선생님께서 노트북을 고쳐 주셨어요.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01 박혜림 -

‘하모니카’ 장로님을 칭찬합니다.  
 셔틀버스 운행하시는 하모니카 장로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승객들에게  
 친절하시고 재미있는 유머로 승객들을 즐겁  
 게 해 주시며,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  
 하고 인자하시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승  
 객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모니카  
 장로님을 적극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209 복성혜 -

천연치료실 ‘이정옥’님을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친절  
 하신 3층 간호사선생님들, 최철규 선생님,  
 셔틀 운전하시는 선생님 등... 그 중 특히  
 천연치료실 이정옥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늘 편안하고 기분 좋게 치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빠지지 않고 치료에 자주 가  
 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 315 이우인 -

## 노래배달서비스

소중한 **이**에게 노래 선물하세요

나 자신을 응원하며 스스로에게,  
 우리 친구 힘내라고 같은 방원 혹은 다른 방원에,  
 환우가 직원에게 직원인 환우에게  
 누구에게나 노래배달을 신청하시면  
 아침 8시 30분에 직접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프로그램계 사무실에 신청하  
 면 일정을 협의하여 접수해  
 드리고, 신청자 중 매월 한 분  
 추천하여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내선 615)

## 수기공모

에덴뉴스에서  
 환우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상품권 및 기념품을 드립니다.  
 환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에덴에서 경험한 행복이야기
- 가족, 환우를 향한 사랑의 편지
- 감동을 주는 병실 에피소드
- 그 외 자작시나 수필 등

문의 홍보기획실 (☎610)



